

01 교회소식

2024년, 새로운 출발!

삼위일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2023년을 보내고 2024년을 맞이하며 사랑의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린 '2023-2024 송구영신예배'.

02 생명의 말씀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여 아브라함처럼 믿음으로 의인이 되면 무엇이든지 구하는 대로 응답받으며 이루지 못할 것이 없다.

03 기획특집

영적인 말씀 무장을 하는 방법

하나님 말씀을 항상 가까이하며 주야로 묵상해 그 말씀대로 행하고자 불같이 기도할 때 순종함으로 선행하고 아름다운 마음을 이룰 수 있다.

04 간증

“치료의 주님을 만나 새로워졌어요”

뇌진탕, 경추 염좌, 무릎 연골 파열 등을 기도로 치료받아 주님의 십자가 사랑을 더 깊이 느끼며 새롭게 거듭난 성도들의 간증.

# 만민뉴스

제1010호 2024년 1월 14일(주간)  
**MANMIN NEWS**  
교회 대표전화 02-818-7000  
www.manmin.org

##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의인의 믿음으로 성장하기를”

### 2023-2024 송구영신예배, 전 성도 기도제목 축복기도

우리 교회는 축복의 새해를 앞두고 2023년 12월 31일 밤 11시, '2023-2024 송구영신예배'를 드렸다.

GCN방송과 유튜브를 통해 생중계된 이날 예배는 영어, 중국어, 일어, 러시아어, 불어, 스페인어, 몽골어, 베트남어 8개 언어와 힌디어를 비롯해 선교지 여러 언어와 각국 수어 등으로 동시 통역되었다.

1부 예배 시 당회장 직무대행 이수진 목사는 2024년 교회 첫 번째 기도 제목인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롬 1:17)에 대해 설교했다.

이 목사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의인은 현실을 보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의지해 그 결과를 바라보는 믿음을 가지며,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는 행함 있는 믿음을 소유한다.”라고 전하며, “2024년 새해에는 범사에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하나님 언약의 말씀을 믿어드리므로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며, 더 나아가 하나님께서 기다리고 바라시는 의인의 믿음으로 성장해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일을 나타내는 복된 성도들이 되기를” 기원했다.

2부에는 각 가정에 미리 전달된 기도 제목 용지에 성도들이 작성한 기도 제목을 위한 축복 기도가 있는 후 서승원 찬양선교사와 남성 중창, 워십팀 등 예능위원회에서 준비한 감동의 찬양과 워십으로 축복의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렸다.

한편, 새로운 2024년을 맞아 전 성도가 함께 기도하며 합차게 이뤄갈 우리 교회 기도 제목은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롬 1:17)에 이어 '깨어 있으라'(벧전 5:8-9), '성전 이전'(수 14:12), 마지막으로 '불같은 성령의 역사'(막 16:15-20)이다.

우리 교회는 2024년에도 성결의 오중복음과 놀라운 권능의 사역으로 살아계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땅끝까지 전파하며 불같은 성령의 역사를 창대하게 펼쳐 전 세계 만민을 향한 구원의 섭리를 아름답게 이루어갈 것이다.



謹賀新年

#### 2024년 교회 기도제목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롬 1:17]

깨어 있으라 [벧전 5:8~9]

성전 이전 [수 14:12]

불같은 성령의 역사 [막 16:15~20]





당회장 이재록 목사

#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 네 아들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네게 지시하는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 그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더니 … 그 수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창세기 22:1~13)

상대를 온전히 신뢰하는 사람은 눈빛이나 몸짓만 보아도 그 마음을 느낄 수 있습니다. 설령 이해되지 않는 말이나 행동을 해도 오해하지 않고 상대의 입장에서 생각하려고 하지요. 그러나 불신하는 경우는 친한 것 같아도 사소한 일에 감정이 쉽게 상해 결국 갈라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과 자녀와의 관계도 얼마나 진실함으로 신뢰를 쌓았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 1. 생명도 내줄 수 있는 신뢰의 아름다움

우리는 살아가면서 누군가에게 부탁해야 할 때도 있고, 부탁받을 때도 있습니다. 물론 그 일이 악한 일이라면 절대 동참하지 말아야 하지만 선한 일을 부탁받았을 때 자기의 모든 것, 심지어 생명도 아끼지 않고 나서서 해결해 준다면 참으로 아름다운 일일 것입니다.

성경에도 이런 예를 볼 수 있는데, 바로 에스더입니다. 포로로 잡혀 온 자기 민족이 악한 하만의 계략으로 멸망할 위기에 처하자 모르드개는 페르시아의 왕비가 된 에스더에게 부탁합니다. 왕에게 나아가 자기 민족을 위해 청원하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에스더는 선뜻 나설 수가 없었습니다. 누구든지 왕의 부름이 없이 그 앞에 나아가면 죽임을 당하기 때문입니다. 단, 왕이 은혜를 베풀어 금함을 내민 경우에는 목숨을 건질 수가 있었지요.

거듭되는 모르드개의 요청에 에스더는 삼 일 금식을 한 후 생명을 걸고 왕 앞에 나아갔습니다. 민족을 위해 죽음을 각오한 것이지요. 이렇게 아름다운 마음을 가진 에스더에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왕의 마음을 주관하시니 결국 민족을 위기에서 구하게 됩니다.

에스더가 선 가운데 자기 유익이나 생명을 돌보지 않고 청을 들어주었기 때문에 협력해 선을 이루고 결과도 복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사람과의 관계에서 신뢰와 사랑이 얼마나 아름답고 가치 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모르드개는 부모 없는 에스더를 딸처럼 양육했고, 에스더 역시 그를 아버지처럼 따르며 신뢰했기에 생명을 담보로 하는 부탁까지 주고받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 2.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신뢰 관계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실 만한 중심의 소유자요, 의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가 얼마나 의로운지 드러내고 온전케 하기 위해 시험하시지요. 그 과정을 보면 아브라함과 하나님 사이에 얼마나 신뢰가 있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창세기 12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버 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하십니다. 목적지를 알려 주지 않고 앞으로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하나님을 전폭적으로 믿기 때문에 말씀에 순종해서 길을 떠났습니다.

또한 그는 하나님께서 자기의 모든 삶을 보고 계시며 함께하신다는 것을 믿기에 모든 것을 맡겼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아브라함의 삶 가운데 항상 함께해 주셨지요. 흔히 사람들은 어려운 일이 닥치면 하나님께 매달려 보다가 응답이 빨리 안 되면 쉽게 포기합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모든 것을 인내하며 끝까지 믿음으로 나아갔던 것입니다.

마침내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는데 그곳에는 이미 여러 족속이 터를 잡고 살고 있었습니다. 현실을 보면 불가능하지만,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라” 하시니 그대로 믿었습니다. 그런데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하신 약속이 무색하리만큼 그 땅에 심한 기근이 들어 이주해야만 하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그래도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조금도 의심하지 않고 묵묵히 인내하며 때를 기다렸습니다. 비록 하나님께서 주신 꿈과 자신이 처한 현실이 맞지 않아 보여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오직 믿음의 눈으로 바라본 것입니다. 가나안 땅의 기근을 피해 애굽으로 왔건만 이제는 설상가상으로 애굽 왕에게 아내 사라를 빼앗기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니 하나님께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시므로

바로 왕은 즉시 사라를 아브라함에게 돌려보냈고, 이 일로 아브라함은 오히려 육축과 은금이 더욱 풍부해졌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직 믿음으로 행하는 아브라함에게 모든 것을 협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축복하시니 함께한 조카 롯까지 복을 받았습니다. 두 사람의 가족이 어찌나 많았던지 목초지와 물을 얻기 위해 아브라함과 롯의 목자들 사이에 다툼이 생겼지요. 이에 아브라함이 롯에게 “우리는 한 골육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네 목자나 서로 다투게 말자 네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나 나를 떠나라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하며 삼촌이면서도 조카에게 땅을 먼저 선택할 수 있는 우선권을 줍니다(창 13:8~9). 참으로 선하고 아름다운 마음이지요.

이처럼 아브라함은 아무와도 원망과 시비가 없이 오직 덕과 사랑으로 모든 일을 지혜롭게 처리해 나갔습니다. 이런 모습에서 하나님께 대한 그의 신뢰가 어떠한지를 알 수 있지요. 하나님께서 함께하신다면 그에게는 어떤 땅을 택하느냐가 중요한 문제가 아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아브라함의 마음과 행함을 기뻐 받으시고 그를 축복하셨습니다(창 13:14~17).

그 후에도 아브라함은 롯이 포로로 잡혀가자, 자신의 목숨을 걸고 롯을 구했지요. 하나님께서 죄악으로 가득한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하실 때는 아브라함을 생각해서 롯을 구해 주셨습니다(창 19:29).

그런데 아브라함에게는 대를 이을 아들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집에서 양육한 종 엘리에셀을 상속자로 삼고자 했지요. 이때 하나님께서는 “네 몸에서 날 자가 네 후사가 되리라” 하시며 아브라함에게 “하늘의 못별같이 네 자손이 셀 수 없을 정도로 많게 될 것이라” 약속하십니다. 아브라함은 이 말씀을 그대로 믿었지요.

이미 자신이나 아내가 나이 많아 자식을 낳을 수 없지만 결코 현실을 바라보지 않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크게 기뻐하시고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습니다.

그런데 10년이 지나도록 후사가 생기지 않자 아내 사라가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지 못하고 인간적인 방법을

**만민뉴스**  
등록 다-1840(1989. 7.12)

발행인 이재록  
편집인 빈금선  
인쇄인 이호영

홈페이지  
[www.manminnews.com](http://www.manminnews.com)

만민중앙교회  
대표전화 02) 818-7000

**만민중앙교회 예배안내**

주일 대예배	1부 10:00 AM 2부 11:30 AM
주일 저녁예배	3:00 PM
주일 빛과소금교회 예배	9:00 PM
주일 빛과소금교회(요식업) 예배	11:00 PM
금요철야예배	11:00 PM
수요예배	7:00 PM
화요찬양예배 [청년·가나안]	8:30 PM
수요찬양예배 [빛과소금]	9:00 PM
토요찬양예배 [중·고등부]	4:00 PM
다니엘 철야 기도회	9:00 PM (매일/ 단, 금요일은 제외)
새벽예배	5:00 AM (매일/ 단, 토요일은 제외)

※ 코로나19로 인해 일부 변경이 있습니다.  
예배 시간 및 관련 문의: 02-818-7236

**| 이재록 목사의 부흥성회 설교집 |**

URIM BOOKS

+교보문고, 영풍문고, 북스리브로, 예스24, 인터파크 등에서 판매+

동원합니다. 아브라함에게 자신의 여종 하갈과 동침해 자녀를 얻도록 요구한 것입니다. 그 결과 하갈과의 사이에 이스마엘이 태어납니다.

아브라함이 99세가 되던 해, 하나님께서는 다음 해에 아들을 얻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약속대로 아브라함은 이삭을 100세에 얻지요. 어느 날 사라는 이스마엘이 이삭을 희롱하는 것을 보고 아브라함에게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쫓으라고 요구합니다. 이스마엘도 자기 피를 이어받은 아들이니 아브라함은 깊이 근심했지만, 하나님께서 사라의 말대로 하라 하시니 그대로 순종하지요.

이처럼 믿음의 사람은 정과 욕심에 치우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이면 오직 순종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순종을 기뻐하시고 이스마엘을 통해서도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십니다.

### 3.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

하나님께서 순종하는 아브라함을 축복하기 위한 마지막 시험을 허락하십니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는 것입니다. 인간적인 생각을 동원하면 도저히 이해할 수도, 따를 수도 없는 명령이지만 아브라함은 이삭을 바쳐도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실 줄로 믿었기에 조금도 주저하지 않고 순종합니다(히 11:19).

하나님을 전폭적으로 믿었기 때문에 이삭을 바치는 행함이 나올 수 있었지요. 바로 믿음이 있기에 행함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의인은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믿고 행하니 하나님의 역사가 따릅니다.

로마서 1장 17절에 “...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했습니다. 그러면 믿음이란 무엇일까요?

믿음에는 육적인 믿음과 영적인 믿음이 있습니다. 사람은 성장하면서 배운 것을 머리에 지식으로 쌓습니다. 이런 지식과 일치할 때만 믿는 믿음이 육적인 믿음입니다. 내 생각이나 지식과 맞지 않는 일, 즉 해와 달이 운행을 멈춘다거나 죽은 사람이 살아난다는 등의 상식에 어긋난 일을 믿을 수 없지요. 육적인 믿음은 응답받을 수 없으며 구원받을 수도 없기 때문에 죽은 믿음이라고 합니다.

반면에 영적인 믿음은 산 믿음이라고 하며 마음에서 믿어지는 믿음입니다. 내 생각과 지식에 맞추지 않으며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믿습니다. 이러한 영적인 믿음을 소유하려면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하였으니(롬 10:17)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행해야 하지요. 그럴 때 지식적인 믿음이 받침대가 되어 하나님께서 영적인 믿음을 소유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믿음은 사람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3절에 “...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말씀한 대로입니다.

겨우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는가 하면, 말씀대로 행하려고 노력하는 믿음, 말씀대로 행할 수 있는 믿음, 지극히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에 이르기까지 사람마다 그 분량이 다르지요. 이는 얼마나 말씀대로 행하는지, 죄를 버리고 성결되었는지, 나아가 온 집에 충성하는지에 따라 차이가 납니다.

하나님께서 살아 계셔서 구하는 사람에게 주시며 하나님 보시기에 의와 믿음을 내보이는 사람에게 역사하십니다. 야고보서 2장 21절에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드릴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믿음으로 행군한 아브라함에게 어떠한 축복을 주셨을까요?

창세기 22장 16절 이하에 “... 네가 이같이 행하여 네 아들 네 독자를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네 씨로 크게 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네 씨가 그 대적의 문을 얻으리라 또 네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니 이는 네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범사에 넘치는 복을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지 예정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어떻게 시험을 통과할 줄도 아셨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중심도 아셨습니다. 그런데도 그를 시험하신 것은 원수 마귀 사단에게 송사 받지 않게 하기 위함이었지요. 결국 원수 마귀 사단 앞에서도 믿음의 조상으로서 아브라함의 신앙은 분명히 증명되었습니다.

아브라함처럼 믿음으로 의인이 되면 무엇이든지 구하는 대로 응답받으며 이루지 못할 것이 없습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의인이 되어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축복을 받으며 모든 마음의 소원까지도 응답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 기획특집

## 영적인 ‘말씀 무장’으로 만사형통의 축복을!



하나님 말씀을  
항상 가까이하며  
마음에 깊이 새겨야 합니다

독생자도 아낌없이 내어주신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자녀들이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 말씀을 눈으로 보고 마음에 깊이 새김으로 늘 그 명령을 지켜 행하여 범사에 보호받고 축복 받는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원하십니다(신 6:6~9).

범죄한 아담의 후손인 모든 사람은 변질하는 속성이 있기에 들어도 잊어버리기 쉽고 마음을 지키기가 쉽지 않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머리에 담으면 쉽게 잊어버리지만, 보혜사 성령

이 내주하시는 우리 마음에 담으면 그 내용은 정확히 기억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루 세 끼 식사하고 잠을 자며 호흡하는 것을 일일이 기억하지 않아도 습관을 좇아 행하는 것처럼 우리 마음에 하나님 말씀을 담아 지켜 행할 수 있습니다.

마음에 깊이 새긴다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항상 가까이하며 주야로 묵상하여 다 지켜 행하는 것입니다(수 1:8).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담고 지켜 행하면 세월이 지나도 잊어버리지 않고, 필요에 따라 내주하시는 성령이 떠올려 주십니다.

날마다 묵상하며  
그 말씀을 붙잡고  
불같이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면 매일 생각나고 항상 보고 싶듯이 하나님을 사랑하면 성경에 기록된 주의 법을 사랑하여 종일 묵상하게 됩니다(시 119:97, 148).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며 지켜 행하는 것은 사람의 의지와 노력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오직 불같은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능력, 성령의 도우심을 힘입을 때만이 죄를 벗어 버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행할 수 있지요(딤후 4:5).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어린 양을 먹을 때 날로나

물에 삶아 먹지 말고 그 머리와 정강이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출 12:8~9). 어린 양은 곧 예수님, 진리 자체를 말하며, 성경 66권 말씀을 문자 그대로 읽거나 다른 어떤 것과 섞어서는 안 되고 오직 기도의 불을 붙여 성령의 감동함 속에서 하나님 말씀을 양식 삼아야 지켜 행할 수 있지요.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날 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기 때문입니다(히 4:12).

말씀을 지켜  
행함으로 마음을 영으로  
온전히 일궈야 합니다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행하는 것이 중요하고, 행함의 열매를 보일 때만이 그 믿음이 온전케 되어 의롭다고 하심을 얻을 수 있습니다(롬 2:13). 예수님께서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하셨습니다(요 6:53). 인자의 살을 먹는 것은 성경 66권 말씀을 마음에 양식 삼는 것을 말하며, 이것을 믿음으로 지켜 행하는 것이 인자의 피를 마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리를 깨닫고 행함으로 나타날 때 첫 사람 아담의

범죄로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온전히 회복할 수 있습니다. 성경 말씀을 늘 묵상하고 진리 가운데 행하기를 힘쓰게 되면 마음에 내주하신 보혜사 성령이 우리의 선한 마음을 주관하여 성령의 음성과 인도를 받게 하십니다(요 14:26). 또한 성령이 주관하는 대로 순종하므로 결코 죄를 범치 않으니 하나님 말씀을 지켜 행함으로 마음을 영으로 온전히 이룰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영적으로 말씀 무장이 되어 있는 만큼 원수 마귀 사단의 세력을 파하고 만사형통한 길로 인도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김수경 집사  
(64세, 2대대 13교구)

## “뇌진탕, 경추 염좌, 발목 타박상을 치료받았어요”

2023년 11월 23일, 날씨가 영하로 내려간다고 해서 옥상에 있는 화분을 정리하였습니다. 그리고 옥상에서 내려 오려고 계단을 밟는 순간, 뒤로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제 몸은 미끄럼틀을 타고 내려오듯 계단을 타고 나뒹굴며 떨어졌고 이후로 저는 정신을 잃었지요.

‘우당탕탕’ 큰 소리가 나서 두 아들이 급히 나와 보니 제가 손발을 떨고 있었다고 합니다. 제 머리에는 주먹만 한 혹이 나 있었고, 등과 엉덩이에는 심한 타박상과 이곳저곳 살점이 떨어져 나간 곳도 있었다고 하지요.

작은아들은 곧바로 의식이 없는 저를 위해 당회장 이재록 목사님의 자동응답서비스(ARS) 환자 기도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119 구급대를 불러 병원 응급실로 가서 여러 가지 검진을 받았다고 하지요.

그 뒤 제가 깨어나 정신을 차리고 보니 휠체어에 앉아 있었습니다. 발목에는 깁스하고 손등에는 밴드가 붙어 있었지요. 나중에 병원 진료 기록을 보고서야 많은 검진을 받은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병원에서는 입원 치료를 해야 한다고 했으나 저는 믿음으로 치료받고 싶어서 아들에게 업혀 택시를 타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집에 돌아온 뒤에도 정신이 약간 혼미했지만, 걱정 다니엘철야 기도회에 참석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도회 시작할 때부터 큰 은혜를 부어 주셨지요.

미워했던 마음을 비롯해 떠오르는 것마다 회개하며 통회자복하고 나니 마음이 시원하고 매우 행복했습니다. 그 뒤 저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시겠구나.’ 하는 마음이 들어 착용하고 있던 깁스를 풀고 발목을 움직여 보며 뻣뻣했던 목도 돌려보니 잘 움직일 수가 있었습니다.

다음날인 11월 24일 금요일아침에 은사 집회 시 당회장 직무대행 이수진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며 다시 한번 저 자신을 철저히 돌아보며 회개하였고, 환자 기도를 간절히 받았습니다. 이후 제 마음은 행복 그 자체였고, ‘아! 이제 나는 치료받았다.’는 확신이 들었지요.

과연 일어나 걸어보니 지팡이 없이도 잘 걸을 수 있었고, 상처 난 부위에 흐르던 진물이 멈추고 머리의 혹도 가라앉았습니다. 11월 28일에 병원에서 검진받으니, 몸에 아무 이상이 없었지요. 할렐루야!

사고 후유증으로 크게 고통받을 수 있었던 저를 기도 중에 깨우쳐 주시고 신속히 치료해 주신 삼위일체 하나님께 모든 감사와 영광을 올려 드립니다.

## “오른쪽 무릎 연골 파열을 치료받았어요”

2023년 5월부터 다리가 10kg 모래주머니를 달아 놓은 것처럼 무겁고, 오른쪽 무릎 통증으로 인해 몇 초도 서 있기가 매우 힘이 들었습니다. 병원에 가서 진단해 보니 오른쪽 무릎 인대가 찢어졌다고 하였습니다.

사실 저는 3년 전부터 서울에서 강원도 횡성까지 다니며 농사일을 하고 있는데, 퇴행성관절염이 오면서 이런 상태가 지속되다 보니 더 안 좋아지고 있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11월 17일에는 식사 준비를 하다가 미끄러져 뒤로 넘어지면서 전신에 극심한 고통이 따랐고 스스로는 몸을 움직일 수가 없었지요. 이에 휠체어 생활을 하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목발을 짚고 다닐 수는 있었지만, 오른쪽 발을 땅에 디딜 수가 없었습니다.

11월 22일, 정형외과에 가서 MRI 촬영한 결과 의사 선생님은 “연골이 너털너털해질 정도로 파열되었고 인대가 늘어났으니 더 큰 병원으로 가서 수술해야 한다.”며 “수술하지 않으면 오른쪽 다리를 아예 사용하지 못할 수도 있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곧 11월 은사 집회가 있으니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치료받고자 저를 깊이 돌아보며 기도하였습니다. 그러자 시골을 오가며 친정 부모님과 남편과 함께 주

일 예배를 드리면서 예배 중 형제나 일가친척들의 방문이 잦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지 못하고 기도 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한 것, 말씀대로 살지 못해 그리스도의 향기를 발하지 못한 것 등이 떠올라 회개하였지요.

11월 23일에 저는 물리 치료를 받기 위해 재활센터에 입원하게 되었고 그곳에서 더욱 간절히 저 자신을 돌아보며 은사 집회를 사모함으로 준비하였습니다. 24일에는 휴대폰을 통해 은사 집회에 참석하였지요.

당회장 직무대행 이수진 목사님께서 환자 기도를 해주실 때 제 마음은 뜨거웠고, 저도 모르는 사이에 서서 기도를 받고 있었습니다. 실시간 접수한 간증을 들을 때는 ‘나도 목발을 버리고 걸어보고 싶다.’는 마음이 들어 오른쪽 발을 바닥에 디더보았지요. 그런데 발을 디딜 수가 있었고, 목발 없이도 걸을 수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몇 개월 동안 단 몇 초도 서 있기가 힘들어 고통스러웠는데, 이제는 잘 걷고 편안하게 서서 설거지도 하며 일상 생활을 할 수 있으니 너무나 행복합니다.

이 일을 통해 주님의 크신 십자가의 사랑을 더 깊이 느끼므로 주 안에서 믿음 소망 사랑으로 충만하도록 축복해 주신 아버지 하나님께 모든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원경숙 집사  
(55세, 2대대 12교구)

### 국내 지교회, 지성전 주소 및 연락처

주일 대예배, 주일 저녁예배, 금요일아침예배를 서울 만민중앙교회와 NSS-6를 통해 동시 화상예배로 드립니다.

- 공주만민교회 충남 공주시 변영로 34 ☎041)881-7000, 010-3030-7025
- 광주만민교회 광주광역시 서구 하남대로 550번길 39-33 ☎062)513-2455, 010-8888-0727
- 구미만민교회 경북 칠곡군 북삼읍 금오대로6길 30 ☎054)920-4512, 010-3343-1537
- 김해만민교회 경남 김해시 어방동1099-2 J빌딩 4층 ☎010-6218-0703
- 남포항만민교회 경북 포항시 남구 새천년대로 409-15 ☎054)281-2468, 010-9773-7017
- 대전만민교회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화로 26 ☎042)625-1205, 010-6425-8705
- 마산만민교회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내서읍 광역천서로 57 광림빌딩 7층 ☎010-8741-2073
- 목포만민교회 전남 목포시 상동 비바로 135-1 2층 ☎010-3927-7526
- 무안만민교회 전남 무안군 해제면 해제지대로 167-82 ☎061)452-7443, 010-6320-5984
- 밀양만민교회 경남 밀양시 시청서길 36 ☎055)353-9192, 010-9382-2073
- 부산만민교회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동평로 168 ☎051)805-3898, 010-4547-4194
- 사랑만민교회 충남 계룡시 엄사면 향환리 374 ☎042)841-0091, 010-7195-1099
- 새대전만민교회 대전광역시 유성구 와룡로 136번길 ☎010-5434-3927
- 서산만민교회 충남 서산시 예천동 650-5 ☎010-6306-9798
- 속초만민교회 강원도 속초시 만리공원길 7-1 3층(교동) ☎033)637-0271, 010-7733-1327
- 순천만민교회 전남 순천시 장천동 팔마로11-5 3층 ☎061)745-1117, 010-6603-7266
- 아산만민교회 충남 아산시 청오로 129 향야빌딩 3층 ☎041)546-1537, 010-2672-0244
- 여수만민교회 전남 여수시 망마로 102 ☎061)652-8311, 010-2325-1228
- 대구엘림만민교회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산로 11길 5 ☎010-9196-3927

- 익산만민교회 전북 익산시 평동로2길 6 ☎063)853-0675, 010-3637-0263
- 전주만민교회 전북 전주시 완산구 한철길 30 ☎063)223-9991, 010-4202-1537
- 진주만민교회 경남 사천시 사천읍 선인길 17, 2동 3층 ☎055)854-5816, 010-4849-1479
- 천안만민교회 충남 천안시 서북구 성정길 5 ☎041)577-7077, 010-3447-7077
- 청주만민교회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옥산면 가락길 71 ☎043)293-7077, 010-8291-7173
- 춘천만민교회 강원도 춘천시 옥산포길 17-7 ☎010-6772-7710
- 충주만민교회 충북 충주시 거룡2길 53-1 2층 ☎043)845-0617, 010-2447-9217
- 강동지성전 서울시 강동구 양재대로 1508, 호유빌딩 지하 ☎02)489-3766, 010-2201-0542
- 검단지성전 인천시 서구 완정로 162 ☎010-5611-7254
- 구리지성전 경기도 구리시 안골로 46, 광명빌딩 5층 ☎031)552-7397, 010-2290-1856
- 부평지성전 인천광역시 부평구 주부토로 112, 5층 ☎010-5611-7254
- 북부지성전 서울시 강북구 도봉로 172 ☎02)995-9951, 010-3917-6003
- 분당지성전 성남시 분당구 아탑로 95 ☎010-2201-0542
- 수원지성전 경기도 수원시 팔달문로 150번길 26 2, 3층 ☎031)202-8480, 010-3330-3172
- 안산지성전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광덕산2로 22, 은성빌딩 3층 ☎031)485-9143, 010-9636-7977
- 영종도지성전 인천광역시 중구 은하수로 351 832동 402호 ☎010-5611-7254
- 의정부지성전 경기도 의정부시 평화로 483, 2층 ☎031)840-2906, 010-4710-9649
- 이천지성전 경기도 이천시 이섭대천로 1177번길 12 ☎031)635-9103, 010-2201-0542
- 인천지성전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남로 120 백세빌딩 10층 ☎032)863-9857, 010-5611-7254
- 일산지성전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강촌로 18, 아원B/D ☎031)905-2419, 010-4710-9649